1998. 9. 15 창간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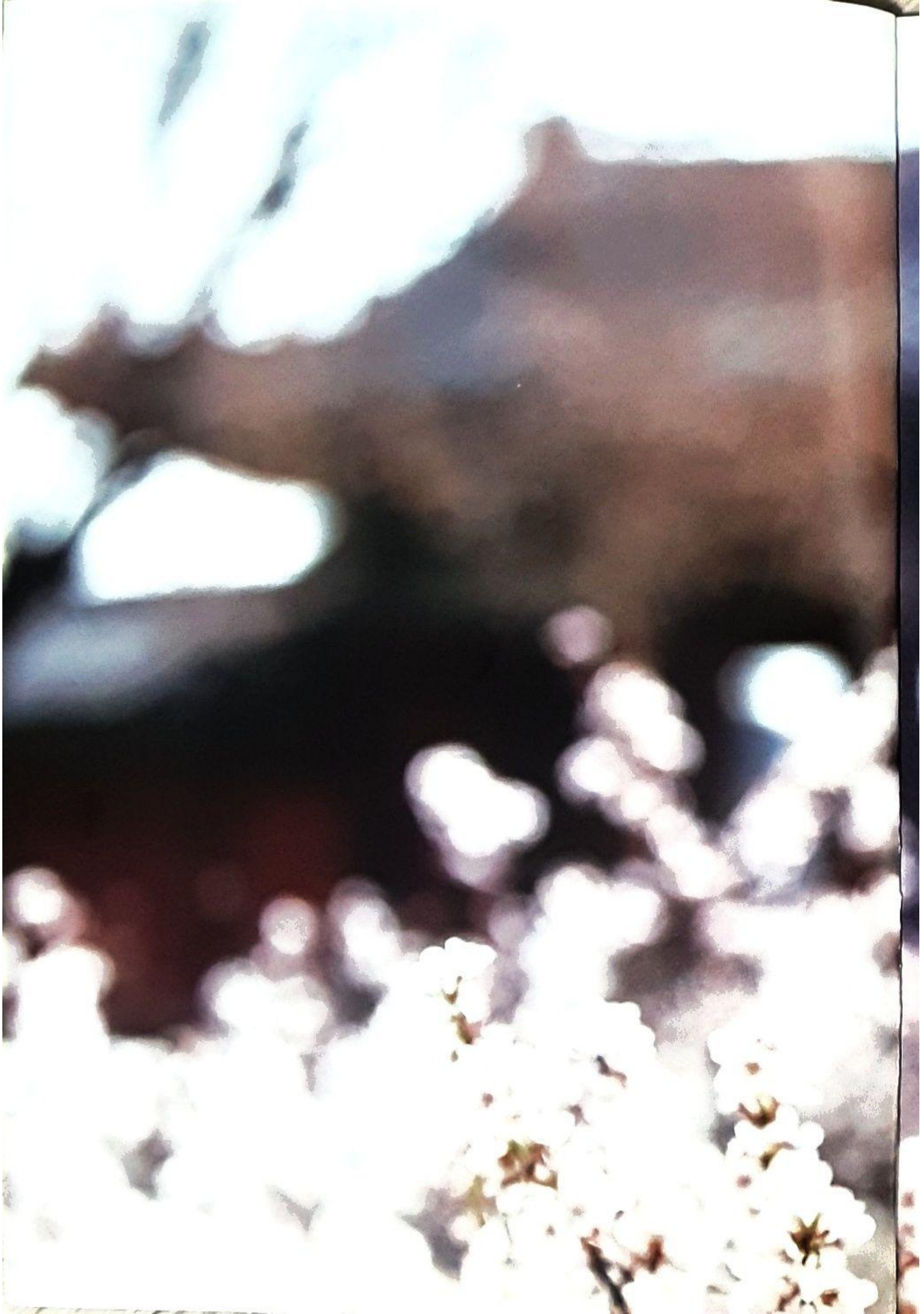
# 성시

vol.197

4
2015



사설 연합
특집1 강촌에벤에셀
특집2 초교파 목회자 셀모임
특집3 3색(色)의 영성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인물 성기문 법원장
교회탐방 43주년을 맞이한 순복음춘천교회
영화이야기 퀴바디스





## 함께 이루어가는 성시화

춘천성시화는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교회의 일이 아니라
춘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성시화운동은 Made in Chuncheon입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모델도시입니다.

●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성시화운동은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되어
전국과 전 세계의 도시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운동입니다.

●

성시화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은혜에 붙들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는 40여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명에 붙들린
믿음의 선배들로 인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이
또 다른 사명자들을 세웠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감당하는 일을 주 오실 날까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역은 성시화, 선교, 통일을 사역주제로 삼아
성시포럼, 블레싱춘천, 성시화선교대회, 매거진 발행을 하고 있으며,
전국 도시 성시화운동과 춘천교회와 지역사회,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후원신청은 금액은 자유롭게 자동이체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MS신청문의 : 033-250-1260~1
광고문의 : 033.250.1260~1 (사무국)

# Editor's Letter

현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곧 도태되고 마는 사회적 시스템이 세워진 듯하다. 이러한 경쟁은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전쟁을 방불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쉽게 이러한 전쟁에 내몰리고 있다. 영토를 빼앗는 전쟁뿐 아니라 정치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교통전쟁 심지어는 출근전쟁까지 하며 끝없는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은 아쉽게도 교회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수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문을 닫고 사라진다. 이젠 교회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는 지나간 듯하다. 아마도 도시화가 가속화될수록 이런 양상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이런 현실에 처한 교회들이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작은 몸부림일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이라는 책을 펴낸 스티븐 코비 박사는 그 책에서 윈윈전략을 소개한다.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는 공존과 상생의 길을 말한다. 그는 '서로를 위해 헌신하라' 이것이 진정한 윈윈전략이라고 말한다. 성경의 원리도 이와 같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서로가 사는 상생의 원리요 상생의 영성인 것이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니 교회의 현실을 보아도 이런 성경적인 상생의 지혜는 온데간데없고 모두가 이기심의 감옥에 갇혀 서로를 끌어내리고 죽이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는가?

춘천에는 오래 전부터 믿음 선배들이 이런 성시화를 꿈꾸어 왔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을 따라가면 함께 망한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나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잘되는 마음, 상대방의 희생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함께 일어설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다. 바라기는 4월 부활의 달에 먼저 춘천의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의 장벽을 넘어서 상생의 마음을 품고 자생적인 작은 연합들이 들풀과 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장 **최영조**

#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보다는 내면에서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제 정

'첫인상.'

얼마 전 30여년 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생이 30대 같은 외모를 유지하고 있어 그 비결에 관해 궁금해 했던 적이 있다. 그의 외모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현대 의학의 도움도 일부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 인터넷에서 얼짱으로 유명해진 사람이나 모델이나 연기자로 데뷔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최근 예술계의 흐름도 '몸'으로 대변되는 현상을 보면, 우리 시대의 화두 중 하나가 '외모' 혹은 '몸짱'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첫인상(First Impression)은 사람이나 사물을 처음 볼 때 느끼는 인상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인상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각적인 의미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한 번 흘깃 훑어보는 것으로 상대를 평가해 버린다는 것이다. 일례로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고객이 영업직 사원으로부터 받는 첫인상, 영업직 사원이 고객에 대하여 갖는 첫인상이 매출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 법관은 법정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면한다. 만화나 영화에서 흔히 악인으로 그려지는 사람은 외모도 험상 고 잔인하게 묘사되지만, 실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외모나 인상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오히려 사기행각으로 큰 피해를 입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법관은 법정에서 당사자가 한 진술과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얻은 심증과 법원에 제출된 계약서, 진술서, 공문서 등 각종 관련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법정에서 당사자나 증인으로부터 받은 인상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면모는 외모보다는 성장과정, 타인에 대한 배려, 세상을 살아가는 진지한 자세와 부단한 자기 성찰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 Contents

Apr 2015 vol.197

Editor Letter 003
칼럼 004










※ 표지그림 재능기부 : 유명애 수채화가
(작품명 : 꿈결)

006 **캘린더** Apr 2015
008 **사설** 연합
010 **특집1** 강촌에벤에셀 기독교연합회
016 **특집2** 초교파 목회자 셀모임
019 **특집3** 3색(色)의 영성으로 하나 되는 교회
023 **시** 바람과 눈비가 나를 때려도
024 **통일**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026 **기획** 교회 2.0
028 **다음세대** 어린이전도협회
030 **교회탐방** 순복음춘천교회
035 **음악산책** 요한네스 브람스
036 **인물** 성기문 법원장
039 **기관** 군민연합 M.C.F 조찬기도회
042 **시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비전
044 **예수안에서 본 예술** 김춘배 화백
045 **만평/예향**
046 **가정** 객관적이지 못한 자녀교육
048 **설교** 왜 부활인가?
050 **영화이야기 94** 쿼바디스
052 **예수의 미소 56** 새마을 행복 나눔 밥상
054 **좌충우돌건강이야기** 김태균자연의원
056 **3월 이야기**

**창간** 1998. 9 .15 | **발행인** 대표회장 김창환, 본부장 지용찬, 사무총장 이병철
**편집장** 최영조 | **편집위원** 김춘배, 성낙환, 안세현, 이관형, 이영규, 이은정, 이병철, 조영춘, 최상도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주소** 춘천시 금강로 120 강원CBS 3층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전화** T) 033.256.1260~1 F) 033.257.1260 | **이메일** holycc1972@hanmail.net | **Design** 로딘어스

# 2015 4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일에 증인이로

## 「 이달의 기도제목 」

♥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 영적질서가 세워지며 부모의 영적유산이 자녀에게 계승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음세대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개 교회들의 연합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국교회가 되어 정사와 권세에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주의 교회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 주여, 70년이 찼나이다! 이 민족에 희년의 역사를 주시어 사단의 묶음들이 풀어져 온 땅과 백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주소서. 다시한번 주님의 긍휼로 성령충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 민족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일에 써 주소서.

| SUNDAY | MONDAY | TUESDAY | W |
|---|---|---|---|
| | | | ] 캠<br>회관 |
| **5**<br>부활절연합예배<br>새벽5시 호반체육관 | **6**<br>[CCC] ~8일 초중급 LTC<br>CCC 회관<br>[DFC]<br>파송하는제자들훈련 | **7**<br>[어린이전도협회]<br>새소식반 강습회 오전10시<br>오후7시, 춘천지회사무실<br>[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br>오후 7시, 동부교회<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 | 본부<br>7시,<br>2시,<br>] 캠<br>회관 |
| **12**<br>[춘천기드온]<br>칠원제일교회순방 | **13**<br>쥬빌리 및 통일컨퍼런스<br>오후 2시 주향교회<br>[ESP]~16일 간사수양회/평택<br>[DFC]<br>파송하는제자들훈련 | **14**<br>[어린이전도협회]<br>새소식반 강습회 오전10시<br>오후7시, 춘천지회사무실<br>[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br>오후 7시, 동부교회<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 | |
| **19**<br>[CCC] ~23일<br>간사수련회 | **20**<br>[JDM] ~24일 수담안집회<br>JDM 훈련센터<br>[IVF] ~ 24 학사방문<br>[DFC]<br>파송하는제자들훈련 | **21**<br>[어린이전도협회]<br>새소식반 강습회 오전10시<br>오후7시, 춘천지회사무실<br>[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br>오후 7시, 동부교회<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 | 2 |
| **26**<br>[춘천기드온]<br>남신감리교회순방 | **27**<br>[GBT] 비전기도회<br>[통일광장기도회] 저녁 8시<br>석사교 하천무대 | **28**<br>[어린이전도협회]<br>어린이날 파티전도 오전10<br>오후7시, 춘천지회사무실<br>[예수전도단] 매주 화요모<br>오후 7시, 동부교회<br>통일기도모임 매주 화요일<br>오후 4시 주향교회 | 9 |

이로 사도행전 2:32

| 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 ] 캠퍼스사역미팅<br>회관 | **2**<br>[JDM] 부활축전<br>저녁7시 | **3**<br>[ESF] 학생회 MT / 강촌<br>[CCC] 신입생 환영 채플 | **4** |
| | 본부]<br>7시, 성시 이사회<br>2시, 매거진 편집회의<br>] 캠퍼스사역위원회<br>회관 | **9**<br>[교역자연합회]<br>국내성지순례 및 역사 기행<br>오전9시 | **10**<br>[CCC] 선교채플<br>[DFC] 강원선교사회모임 | **11**<br>[두란노 아버지 학교 497]<br>~5월9일 오후5시<br>온누리교회 |
| | | **16** | **17** | **18**<br>[예스컴] 프레이즈<br>오후 6시 중앙성결교회 |
| **2** | | **23** | **24**<br>[IVF] 학사방문 춘천모임<br>[CCC] 여호수아기도회 / 평창<br>[GBT] ~25일 선교학교<br>광역 리트릿 | **25**<br>[CCC] ~26일<br>강원간사 세계기도의 날 / 양구 |
| **9** | | **30** | | |

♥ 행사 일정 등록 문의 033) 256.1260 / holycc1972@hanmail.net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 연합

글 /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지용찬목사(은혜장로교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공동체 모임을 통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갑니다. 몇 해 전 춘천교역자 연합회 회장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 가슴에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춘천의 성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그룹으로 연합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기도 소그룹으로 함께 기도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역자 기도모임을 만들어서 몇 해간 잘 모였는데, 지금은 중단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일곱 교회의 목회자 부부가 주중 1회 금요일마다 교회를 돌아가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 마다 춘천의 교역자, 이 시대의 목회자와 춘천과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나라와 민족,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콜롬비아에서 도시의 목회자들의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은 도시 전체가 우상, 마약,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나 도시가 새롭게 변화됨은 물론 심지어 농작물의 소출까지 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처-죠이선교회

연합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합하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서 춘천의 400여 교회와 35개 단체가 하나로 연합되길 소원합니다.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이지만, 년 2회~3회라도 역대 회장과 35개 단체장들이 한 자리 모일 수 있는 모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 각 단체의 기도제목도 나누고, 연합회와 기관단체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연합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기관단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누어진 기도제목은 소책자로 만들어 춘천의 온 성도들에게 나눠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슬림을 위한 기도자료를 라마단 기간에 전 세계에서 같은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선교단체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직장 선교회를 위해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된다면, 춘천의 온 성도가 함께 같은 기도제목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요일을 정하여 월/교회화/직장 수/학원 등처럼 기도하고, 요일별이 아니면 날짜별이라도 정하여 연합하여 기도한다면 이것이 성시화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관장, 단체장들과 만나면 남다른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다른 형제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가까이 있는 형제의 장점을 본받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연합의 유익을 원수는 알기에 어찌하든지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 모두 원수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 되라"고 하신 중요한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샬롬

# 연합의 꽃을피우고 있는
# 강촌에벤에셀 기독교연합회

글 / 장춘근 목사(강촌 에벤에셀 기독교 연합회 대표)

2014년, 이곳 강촌에서는 활발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다. 서울 사랑의 교회와 이 지역교회들(남산감리교회.강촌장로.강촌감리.광판장로교회.금산시온교회.실로암감리교회.의암감리교회.구암성결.푸른샘교회.외국인국제교회.상걸리교회)과의 아름다운 연합이다. 2014년부터 현재도 진행형인 사랑의 교회 에벤에셀팀과 연합사역은 이 지역사회와 교회들에게 큰 감동과 많은 열매들을 안겨 주고 있다. 함께 하는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넘쳐난다. 교회가 따로국밥처럼 서로 개별화 되어가는 이 세대에 우리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임을 입증하며 지역공동체에 신선한 영향을 미치고 작은 빛이 되기에 충분하다.





# 연합노인대학

지난 한 해 동안 매월 4째 주에 남산교회에서 9회에 걸쳐 연합노인대학이 펼쳐졌다. 매번 모일 때마다 100여명의 노인들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 매번 사랑의 교회에서 약50여명씩 섬김팀이 내려오셔서 정성껏 섬겨주셨다. 식사에 관련된 모든 것과 찬양.분반.의료.소풍.특별순서 등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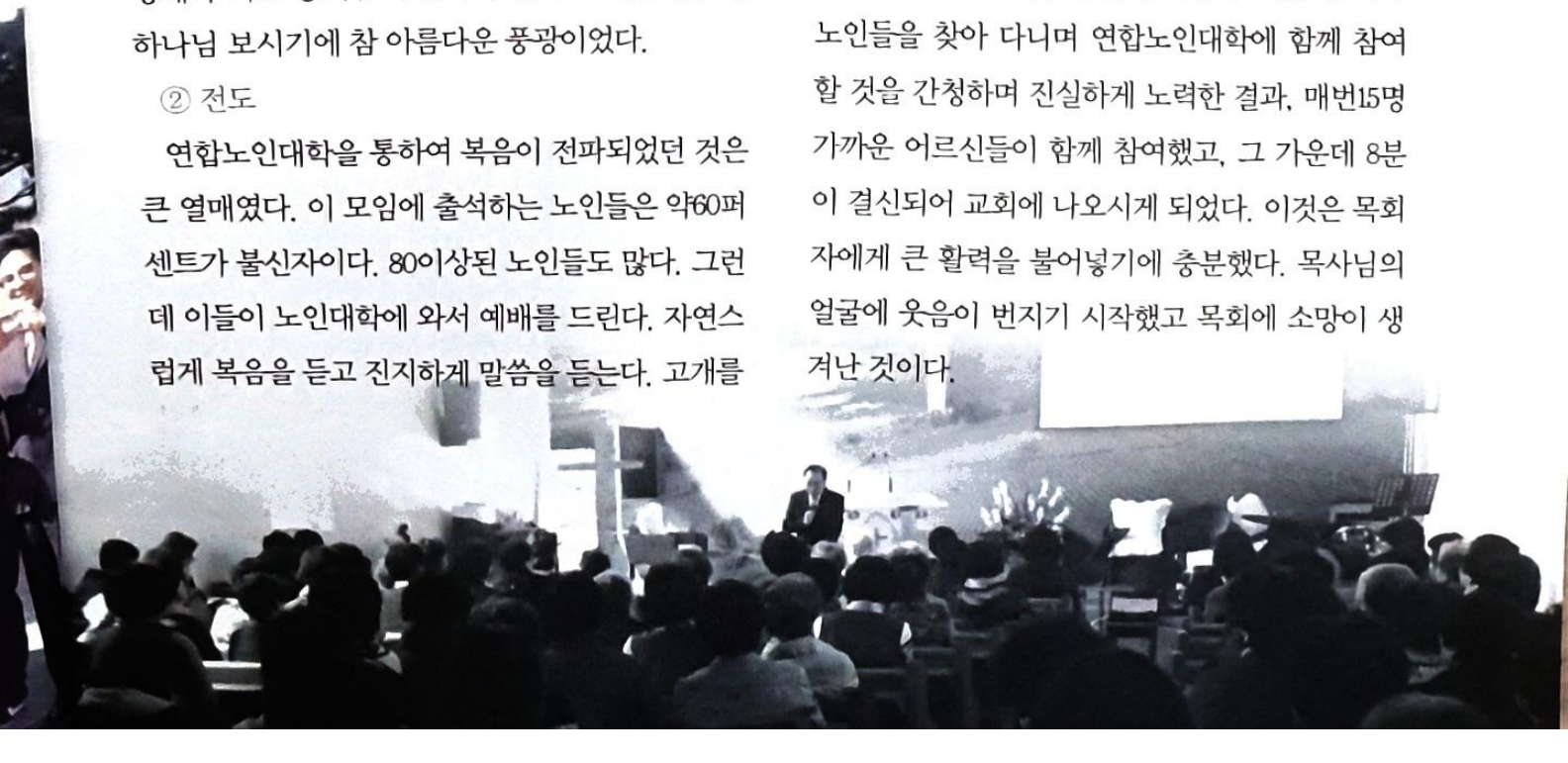
**연합 노인 대학 열매들**

① 연합

서울의 대형교회와 시골의 작은 교회들간의 깊은 교제와 연합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골의 연약한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목회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물심양면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 연합은 시편133편 말씀처럼,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풍광이었다.

② 전도

연합노인대학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은 큰 열매였다. 이 모임에 출석하는 노인들은 약60퍼센트가 불신자이다. 80이상된 노인들도 많다. 그런데 이들이 노인대학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노인들을 보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난다. 실제로 금산시온교회(김지현목사)는 이 노인대학 때문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다. 금산시온교회는 거의 성도들이 없는 시골 미자립교회이다. 담임자인 김지현목사는 너무나 피폐한 시골목회에 회의를 느끼고 도심지로 떠날 생각까지 했었다. 그런데 노인대학이 큰 돌파구가 되었다. 지역 노인들을 찾아 다니며 연합노인대학에 함께 참여할 것을 간청하며 진실하게 노력한 결과, 매번15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했고, 그 가운데 8분이 결신되어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큰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목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고 목회에 소망이 생겨난 것이다.





③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 심기

연합노인대학을 통하여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 이것은 지역전도에 초석을 놓은 매우 중요한 열매이다. 예전의 교회 이미지는 지역에 그저 존재하는 교회였다. 그러나 노인대학을 펼치자 교회의 이미지는 확 바뀌었다. 지역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섬기는 것 때문에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했다. 노인들은 자녀들에게도 자랑을 하신다. 이것 때문에 서울 사랑의 교회와 지역교회들이 아름답게 빛으로 소문이 났다.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케 하신 주님께 영광 올린다.

④ 소통

연합노인대학은 지역 어르신들 간의 소통의 장이었다. 자주 만나 안부를 묻고, 만나면 부둥켜안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염려해주고, 대소사를 걱려해주는 소통의 장이었다. 때로 농사정보를 함께 나누시기도 하고 때로 건강정보를 나누며 두터운 정을 쌓아가는 것을 보았다. 이 소통이 하나님께도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한다.





# 밑반찬 섬김 사역

시골에는 독거노인들이 참 많다. 홀로 살다 보니 식사, 건강, 사회성이 약화되어 대부분 노인들이 힘들게 지낸다. 그런 노인들을 섬기기 위하여 의암교회에서는 밑반찬 섬김 사역을 실천했다. 최호균 목사님이 지역의 극빈독거노인을 파악하여 매주 1회씩 밑반찬을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 이 일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사랑의 교회에서 지원해 주셨다.

### 밑반찬 섬김 사역 열매들

① 영양공급

병이 들었거나 누워계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효과가 있었다. 반찬을 배달해 드리니 억지로라도 식사를 하셨다. 그리고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힘이고 위로였다.

② 전도

밑반찬을 전해드리면서 좋은 소문이 났다. 젊은 목사가 집집 찾아 다니며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혜택을 받은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5가정이 교회에 나와 등록하는 열매가 맺어졌다. 이것은 담임목사를 흥분시켰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셨던 것이다. 목회가 활력을 띠었다.



③ 아름다운 소문

이 일은 그 지역 젊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교회가 반찬을 만들어 약한 노인들에게 공급하다니. 지역공동체에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지역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이다.

## 이.미용봉사

사랑의 교회 이.미용봉사팀이 각 교회에 파송되어 머리손질, 파마를 해주었다. 시내 미용실에 쉽게 갈 수 없는 노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던지! 파마를 하는 긴 시간 동안, 식사로 섬기고 긴 대화를 하며 전도를 할 수 있었다. 이.미용 섬김팀의 노련한 솜씨와 능숙한 전도는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별히 실로암교회(김성호목사)에서 펼쳐진 이.미용봉사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었다.



## 영.수 아카데미 학교

② 전도

이 일이 진행되면서 3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모임도 활발해 졌다. 교회를 중심으로 학생들 똘똘 뭉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교우들에게도 도전이 되었다.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작은 시골교회가 활력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 위해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큰 인물들이 되게 해 달라고....

광판교회에서 실시된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참 좋은 영향을 미쳤다. 매주 1회 교회에서 중학생들에게 영어(호주Native Speaker)와 수학을 가르쳤다. 이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사랑의 교회에서 역시 후원해 주셨다.

### 영,수 아카데미 학교 열매들

① 학습효과

시골에서 호주 원어민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은 매우 드문 풍경이다. 외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많지는 않지만 1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매주 원어민이 찾아와 영어를 가르쳐 주고, 수학전문가가 찾아와 수학을 가르치니 자연스레 학생이 학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어에 자신이 없던 아이들이 영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수학에 자신이 없던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되었다. 이것은 학교성적에도 영향을 미쳐 좋은 성적을 거두는 열매가 맺어졌다.

③ 학부형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일이 진행되자 제일 기뻐하는 분들은 학생들의 부모들이었다. 본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에 나가는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니, 자연스레 교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주변교회들에게도 좋은 도전과 귀감이 되고 있다. 언젠가는 그 학생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꿈을 꿔 본다.



# 붕어빵 전도

겨울철 시골교회들이 모여 연합전도를 했다. 이른바 붕어빵 전도를 했다. 사랑의 교회에서 붕어빵 기계를 구입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정된 교회에 모여 모든 회원들이 참석하여 빵을 굽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 집집 돌아다니며 가가호호 전도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지난 겨울 첫 전도를 의암교회로 나갔는데, 식어버린 붕어빵을 들고 산 중턱을 오르는데 온 몸이 얼어붙고 머리가 마비되는 듯한 느낌! 그러나 지역주민을 만나며 꼭 의암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할 때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붕어빵 전도 효과**

① 구령열

모든 회원들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생겨났다. 해당교회에서 모여 빵을 굽고 나누고 전도하고.. 직접 지역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집집 대문을 두드릴 때 한편 두려움도 있었지만, 분명 저희들 마음속에 구령열이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다. 연합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시대는 무조건 연합이다. 연합만이 살 길이다.

② 용기

이 전도를 하며 목회자들이 전도에 대한 도전과 용기를 얻었다.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목회는 결국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인데, 지역주민들에게 무관심했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용감하게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는 계속 연구하고 계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겨주기도 했다.

위의 열매들 외에도 우리 연합회에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을 매월 돕고 있다. 선교하기 위함이다. 위의 모든 열매와 기쁨을 얻기까지 사랑의 교회의 지원과 기도가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강촌에벤에셀 기독교 연합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기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하셨다. 무조건 연합이다. 연합만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살 길이다. 연합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열어 보이신다. 무조건 연합입니다. 그것이 답이다.

"형제가 깊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시

# 영적 가족 됨과 사역의 폭이 확장 되는
# 초교파 목회자셀모임

대담 / 홍요셉목사(사랑의침례교회), 이은정사무국장(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개 교회 목회는 물론 더 나아가 성시화운동과 통일문제, 세계선교는 한 교회로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교회의 연합을 위해 먼저 목회자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공유하며 모이고 있는 초교파 목회자셀모임을 소개합니다. 춘천에는 이 모임 외에도 다수의 목회자 연합모임이 있는데, 그 중 초교파 목회자셀모임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서로 영적 가족 됨을 확인하며 사역의 폭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지금은 몇 교회가 참여하고 있나요?

2008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침례교 4개 교회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초교파적으로 확장이 되어 지금은 8교회 목회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랑의침례교회(홍요셉목사), 꿈이있는교회(김은선목사), 제자들교회(정선문목사), 푸른초장교회(정덕현목사), 주향교회(이병철목사), 예광교회(조영춘목사), 거성교회(김수복목사), 한섬교회(노에녹목사)가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이사를 가는 등 여러 사정으로 지금은 8개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모이게 된 계기는 네트워크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개 교회 목회는 물론 더 나아가 성시화운동과 통일문제, 세계선교는 한 교회로서는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연합하려면 목회자들이 먼저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한 교회씩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이다 보니 침례교가 좀 비율이 높지만 제한이 없이 초교파적으로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방식은 어떤가요?

매주 수요일마다 모입니다. 수요일 오전 9:30부터 점심 식사 교제까지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도 몇 년간을 꾸준히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임에 주님의 은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 놓고 매주 돌아가면서 모입니다. 모임의 형식은 일단은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어느 정도 얘기가 마무리되면 각 교회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긴급한 기도제목이 있으면 합심해서 강력하게 중보기도를 합니다.

때때로 특별강사를 모셔서 세미나를 갖기도 합니다. 그동안 초청한 강사는 염기석목사, 김우현감독, 홍순주교수, 김바울교수 등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갖습니다. 세미나를 할 때는 사모님들도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일 년에 한두 차례씩 1박 2일간 부부동반 수련회를 갖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여행을 하면서 삶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함께 선교 여행도 합니다.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고,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특별히 좋았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의 가정이나 특별히 교회 문제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하다 보니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마음을 모으고 사

역을 공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변상련의 마음도 갖게 되니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목회 정보도 나누게 되고 사역의 폭도 넓어졌으며, 서로 간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채워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 셀모임에서 가졌던 특별한 사역이 있었나요?

20011년 5월에는 한일연합 리바이벌미션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막힌 담을 허는 집회를 춘천에서 가졌었는데, 그 때 목회자 셀 모임이 연합해서 섬겼습니다. 개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었는데 연합을 하다 보니 큰일이었는데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목회자들이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학교에 복음의 문을 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참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의 교회에서 일본 동경사랑의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2014년도 2월에 있었습니다. 셀 모임을 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후원도 해 줍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작년 2014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각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연합 금요철야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춘천 성시화와 세계선교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건축할 때는 마음을 모아 헌금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작년 성탄에는 함께 거리 전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서로 도우면서 형제 교회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목회자 셀 모임의 유익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 일본 동경사랑의 교회 1주년 예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들과 더 자주 모여서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이 있고,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 3색(色)의 영성으로 하나 되는 교회

취재 / 최상도 기자 saam21@hanmail.net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초기 교회는 지금처럼 교단과 교파로 나뉜 개별 교회의 모습을 띄지 않았다고 한다. 예컨대 고린도지역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고린도교회였고, 빌립보지역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의 이름들 역시 빌립보교회로 불리었다고 한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현대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하겠다. 춘천에 복음의 교두보를 마련한 등대교회, 은혜교회, 나눔교회는 각각 태동한 시기와 상황들은 다르지만 삼색(色)의 영성과 함께 연합을 통해 초대교회의 하나 됨을 추구하고 있다.



## 등대교회,
## 아름다운 등대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다



등대교회를 섬기는 오영광 전도사의 꿈은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껏 쉴 수 있는 교회,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고 그냥 가고 싶고, 가면 모든 것이 충전이 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꿈이 있다.

오 전도사는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의 아현중앙교회에서 20대까지 주님을 섬기다 성북구의 안암교회에서 유치부와 아동부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한 오 전도사. 그리고 이후 강서구에 위치한 세계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신학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첫 담임목회지로 지금의 등대교회로 부임하게 된 것이다. 첫 목회지이기에 모든 것이 신선하고 은혜라고 고백하는 오 전도사. 등대교회에 부임하면서 오전도사가 붙잡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1)"

오 전도사에게 있어서 목회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신자만이 아니라 비신자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신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과 어울리며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세상과 만나는 장이 있다면 그들과 만나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사는 것이다.

오 전도사가 섬기는 사역가운데 감리교 연수 프로그램인 "엠마오 가는 길"이 있다. 사무국장으로 섬기는 오 전도사는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위로와 안식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오 전도사는 최근 신혼살림을 차렸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동반자요, 신앙의 동역자로 이한울 사모(목사)를 주신 것이다. 지금의 시대는 종말로 치달아가는 가인의 어두운 세상이다. 그러하기에 영적인 빛이 가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오 전도사. 기꺼이 등대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등대지기가 되려 하는 것이다.

## 은혜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서다



은혜교회를 섬기는 성낙환 목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앞세우는 겸손한 목사로 알려져 있다. 주님께 나아온 이후로 목사가 그냥(?) 좋았다는 성 목사.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그저 즐겁고 재미있었다고 고백한다.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대학시절, 성실한 평신도 선교사의 꿈을 넘어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은 IVF 간사님들과 선배 목회자들의 말씀 때문이 아닐까 성 목사는 회고한다.

어린 시절, 청평에서 청평감리교회 유치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접하게 되었다는 성 목사. 초등학교 5학년 때 춘천으로 이사해서 신성교회를 섬기고, 사역지로는 횡성 옥동감리교회를 섬기다 지금의 교회로 부임했다.

은혜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강조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은혜와 회복과 평안을 누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적 군사를 세우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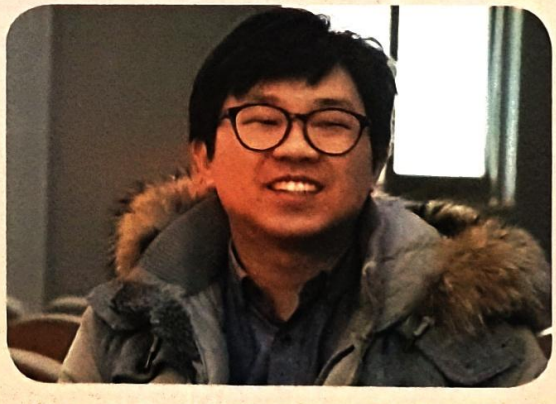
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선교지와 동역하는 마음으로 수년째 헌옷을 모아 선교지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성탄절 무렵에도 몇 개월 전부터 모은 헌옷들을 보내 현지 상황에 맞게 달란트 시장을 열도록 주선한 바 있다.

또한 해외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숙소와 차량문제로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성 목사는 기꺼이 숙소와 차량을 연결, 공급하는 사역도 감당하였다. 직접 선교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서 있는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지원을 감당하는 「예수 물자교회」의 사명을 역설한다.

받은 은혜만큼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성 목사. 사람을 키워 내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 가장 좋은 일꾼을 만들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같은 IVF 출신의 홍윤정 간사와의 슬하에 혜빈, 은빈, 아직 태어나지 않는 축복이를 둔 성 목사. 작은 교회의 성장이 성공이 되는 교회가 아닌 섬김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하며, 오늘도 힘찬 은혜의 사역으로 웃고 시작한다.

## 나눔교회,
##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다



나눔교회를 개척한 박유식 목사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고백한다. 수많은 교회 속에서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단지 교단의 목사 안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교회 개척을 시작했지만 그

후 주님은 기도 가운데 거룩한 고민을 주셨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실까?"하는 것이었다. 지금 나눔교회의 사역과 모습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존재한다.

박 목사는 원래 훌륭한 평신도가 되는 것을 사명을 생각하고 살았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직장 생활 중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진 박 목사는 당시 교회의 부목사님을 통해 신학수업을 제안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기도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박 목사. 출신인 춘천 신성교회에서 교육전도사와 수련 목회자 과정을 거치고, 2011년에는 신북읍에 소재한 「해비타트 소망의 마을」 내에 있는 해비타트 복지관에서 "나눔교회"를 개척했고, 2013년에는 지금의 후평동 예배처소에서 사역하고 있다.

나눔교회는 "하나님나라 복음을 명확히 아는 공동체, 깊이 있는 예배 공동체, 진실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나눔 변혁 공동체 '의 5가지 목표가 있다. 그 중에서 현재 가장 활발한 사역은 교회공간을 문화공간으로 개방한 것이다. 기독교 행사뿐 아니라 규정된 이단들의 모임이 아닌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해서 공간을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름 또한 나눔교회가 아닌 「문화소통 공간나눔」이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다양한 모임이 진행되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돼지 분식 할머니를 돕기 위한 콘서트"가 이곳에서 열렸고, 불치병 여자 친구를 둔 남자친구의 특별 이벤트, 또 정기적으로 노래할 무대를 찾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나는 동네가수다"라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지난 성시신문 1월호 에 소개된 "모던다락방"친구들이 함께 섬겨주고 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기꺼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박 목사는 나눔교회 자체가 복음의 빚, 나눔의 빚을 크게 지고 있다고 고백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배 공간을 한 아름다운 장로님의 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단적이 예라고 밝힌다. 박 목사는 개인적으로 '사랑의 집 짓기 운동 '을 벌이고 있는 "해비타트"를 섬기고 있다. 받은 은혜만큼 교회가 연합하여 때로는 집이 추워 고생하시는 할머니의 집을 고쳐드리기도 하고, 학비와 생활비로 힘들어하는 대학교 친구들을 위해 작은 장학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 주민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에 있는 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나눔의 일들도 감당하고 있다.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아름다운 교회 개척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적 교회를 꿈꿀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박유식 목사. 사랑스런 이현주 사모와의 슬하에 주희, 주은이가 있다.

# 바람과 눈비가 나를 때려도

바람과 눈비가 나를 때려도
나는 간다, 저 고원으로
누가 나와 같이 오르려느냐?
석영암(石英岩) 휘돌아 흐르는 옥수(玉水)
은색의 설원(雪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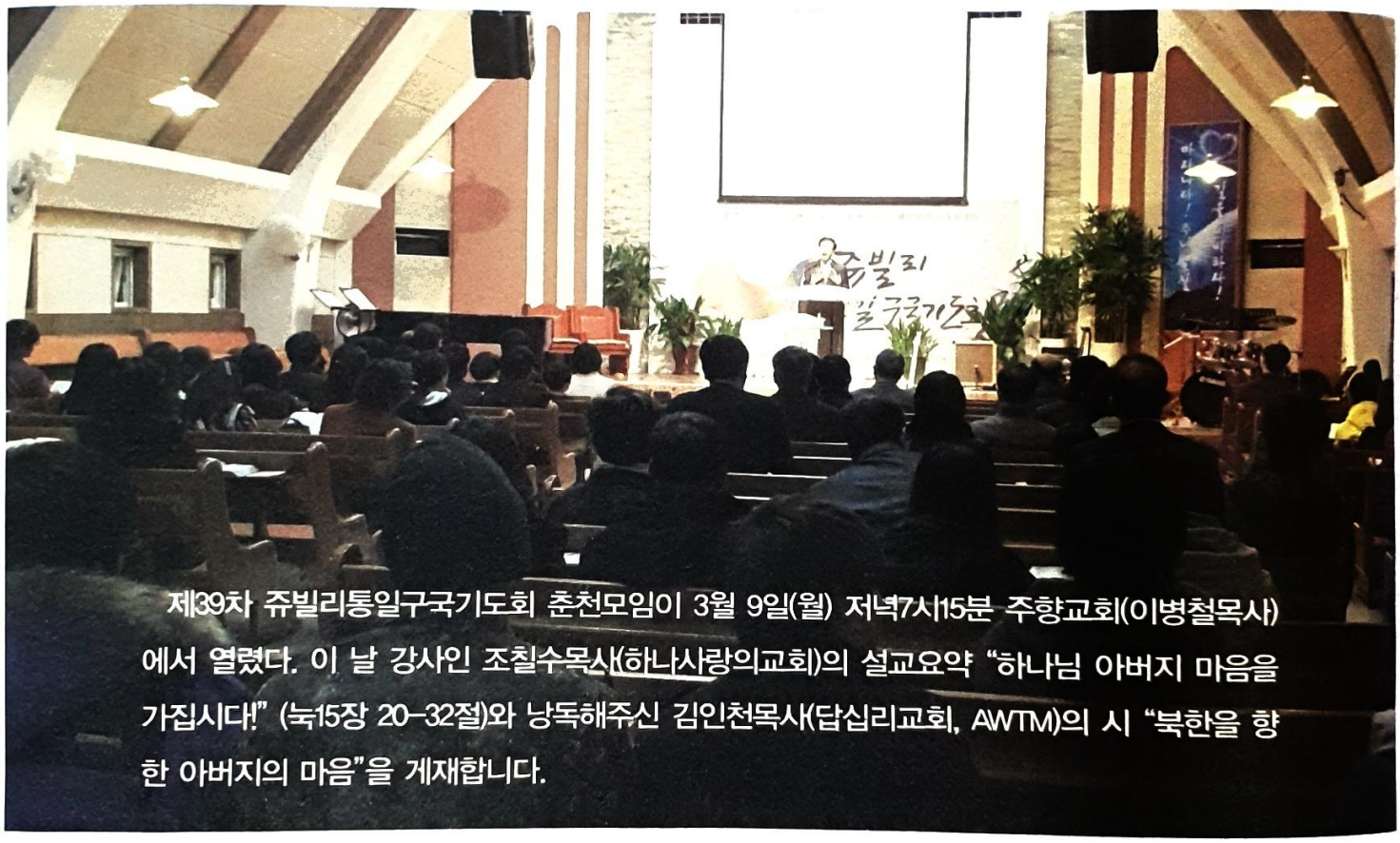


머리 위에 바람은 자지 않고
눈보라 앞을 가로막아도
나는 가리라,
저 고원으로

운무 더불고
억겁 바위 위에 앉아
내 거기서
그대 나라 비밀을 들으리라
남풍의 노래, 서풍의 노래로

벵갈(Bengal)의 신비주의 철인이며 또 시인인 스리 아우로빈도(Sri Aurobindo)의 시 '무어랜드' (Moorland)를 약간 고쳐 썬다 싱(Sundar Singh)이 읊다.

# 제39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제39차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이 3월 9일(월) 저녁7시15분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 열렸다. 이 날 강사인 조칠수목사(하나사랑의교회)의 설교요약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집시다!" (눅15장 20-32절)와 낭독해주신 김인천목사(답십리교회, AWTM)의 시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게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기도, 내 뜻이 기도 속에 죽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을 바로 품고 섬기며 기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70년 체제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드러낸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교회와 사회, 가정을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남북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김인천목사 (답십리교회, AWTM)

아프다. 내가 아프고 아프다.
내 심장이 멎고 가슴에 멍이 가시지 않는다.
한시도 잊을 수 없고 잊은 적 없는 나의 사랑
내 택한 백성의 울부짖는 기도가 폐부를 찔러 견딜 수가 없다.
이 아픔은 내 사랑했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인 그 곳이
죽음의 영이 덮은 땅으로 바뀔 때 이미 시작되었다.
굶주림에 죽어간 이웃 형제와 자기 자녀를 먹는 참상은 내 눈을 감게 했다.
한 편의 말씀과 찬양을 위해 생명을 거는 그들의 사랑 고백은 내 보좌를 움직이게 했다.
어둠의 자리 죽은 자의 처소에서 숨죽여 흐느끼며 내게 울부짖는 그들의 눈물은 날 하염없이 울게 했다.
누가 있어 나의 이 애통함과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인가?
자기 배가 우상인 자들 혈족의 절규를 외면한 자들 도움의 손길을 도둑질한 자들 내가 그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잊었다.
미스바 공회에 모였던 형제의 사랑도 공의에 대한 의분도 외면했다.
그들은 화의 숯불을 머리에 쌓고 저주를 그 태에 잉태하였으니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루터기들은 어디 있느냐. 내가 남겨둔 나의 용사들아 이제 너희는 나아오라.
마음이 나에게 향한 자들은 그 의지를 내게 보이라.
너희는 낯을 들어 나를 보고 내 눈길이 머문 곳 내 마음이 담긴 곳을 마음 판에 새기라.
정녕 내 뜻이 어디 있음을 해하려 너희 행할 일을 정하라.
그리하여 격발하는 나의 노를 멈추게 하고 그치지 않는 이 아픔을 가시게 해다오.
이때를 위하여 너희가 예비 된 것이 아니냐.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네게 원한 선을 행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소요되는 것 힘에 지나도록 공급해 주고 나누어 주라.
그들은 객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네 골육 곧 너희 형제니라.
도움의 손길과 긍휼의 마음에 인색하지 말라.
도적이 든다고 강도의 강팍함이 밉다고 자비 베풀기를 주저 말라.
그들은 내게 맡기고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바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의를 행하라.
그리하여 너희 손길에 나의 자비가 깃들어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그들로 알게 하라.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내 대신 너희가 닦아주어 나의 아픔과 눈물을 경감하라. 아멘

# 교회 2.0 작은 교회의 연합에 대해...

글 / 안세현전도사
yelloworm@gmail.com

매년 초가 되면 어김없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부흥과 성장의 꿈을 품고 신학교에 응시를 하고 합격 혹은 불합격의 소식을 전해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신학생들의 숫자는 아마도 전국에서 수만을 헤아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성장곡선은 이제 하향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보수적 반공적 근본주의적 자본주의적 신앙관에 익숙한 노년층이 굳은 결단으로 예배당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수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신학도들, 목회자 지망생들이 갈 수 있는 임지란 먹고살기도 힘든 작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 교회, 개척한 후 자립하지 못한 교회는 그저 '젊은 날에 사서 하는 고생' 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정류장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제는 몇 년 후의 장래조차 아무도 보장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목회의 현실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십 만 분의 일 정도 된다는 중대형교회라는 바늘귀로 통과하고자 무한경쟁에 자신을 내몰 것인가요? 아니면 작은 교회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면서 작은 자로 서는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것인가요? 작은 교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 시대적 요청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작은 교회, 소위 미자립 교회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노력했으나 아직도 성공적인 처방을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

정말 작은 교회가 희망일 수 있을까요? 아니 작은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소망을 품고 함께 뜻을 모으는 작은 교회 연합 운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 2.0은 '작은 교회' 를 의도적으로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입니다. 작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소망을 품고, 2011년 6월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前 개혁교회

네트워크)에 참여하던 목사들이 만들었습니다. 교인 수 3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서로 연대하여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상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 시대의 흐름과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회2.0의 핵심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극복하고 순수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목회(성경적 가치)

-직분에 따른 복음적 분업을 시행하는 목회(은사적 직제)

-권위주의 극복과 교회의 민주적 운영을 시행하는 목회(민주적 운영)

-개 교회 이기주의 극복과 교회 개혁운동에 동참하는 목회(교회개혁)

-약자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지향하는 목회(사회적 책임)

4년이 되는 지금, 교회 2.0은 작지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회원으로 참여하는 목회자와 신학생 40여명이고, 교회2.0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해 이들의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4000여명에 이릅니다. 매월 한 번씩 포럼을 열어, 목회 사례를 발표하고 핵심가치와 관련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지방 목회들의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포럼'을 열기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목회자 · 신학생 수련회를 엽니다. 목회자와 신학생이 모여 함께 배우고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1인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까지 도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교회2.0은 컴퓨터와 각종 스마트폰 장비로 콘텐츠 생산을 돕는 '스마트 목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교회2.0의 본질은 목회입니다. 회원들은 저마다 목회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하여 카페와 도서관을 운영하고,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를 분립하기도 합니다. 교회2.0은 이런 시도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이제껏 어쩌면 목회자들은 '큰 교회' 말고는 모델을 찾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실패한 목회라는 패배의식도 팽배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눈에 확 뜨이지는 않지만,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교회2.0, 작은교회 박람회 등이 작은 교회 운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회2.0목회자운동
http://cafe.daum.net/church2.0

· 교회2.0목회자운동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groups/2.0ministry

·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건작연)
http://cafe.daum.net/reformingchurch

#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한국어린이전도협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18:14)"를 근거로 그리스도 밖에 잃어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전문으로 하며, 범위에 있어서 국제적이고 사역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적이며 성격에 있어서는 초교파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은 이렇습니다.

교사교육은 4박5일 합숙하여 전도하며 어린영혼에 대해 배우는 "3일클럽전도자훈련",

효과적으로 어린이를 가르치는 방법을 배우는 "TCE교사대학",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어린이를 모아 복음전하는 프로그램 "새소식반 교사강습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름 대축제 "여름성경학교강습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파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파티전도강습회"

어린이전도 사역은 3일클럽, 새소식반, 성경캠프, 어린이꽃잔치, 파티전도(어린이날, 성탄절), 학교 앞 전도, 어린이찬양축제(다예찬),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전도협회는 하나님이 지금 어린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훈련하는 어린이전문선교단체입니다. 어린이들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린이들이 많음에 무척이나 슬퍼집니다. 어린이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일은 무엇이든 경험, 자신의 지식,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좋은 교사가 만들어집니다.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여 어린이들을 위해 섬기십시오.

어린이전도사역의 은혜는 어린이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통한 변화, 은혜를 받은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래는 훈련받은 선생님들의 간증문입니다.

"처음엔 전도가 뭔지 3일 클럽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도훈련을 받은 후 아이들에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아이를 봤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지나치는 순간 머릿속에 하나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지나친 게 후회가 되었는데 또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얼른 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그 아이를 부르는 거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저씨에게 갔어요. 이런 상황이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아이가 그냥 집으로 향할까 봐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 말씀 다 들을 수 있도록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즉시 그 친구가 온 거에요.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고 영접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많이 받고 갑니다."

3일클럽 전도자훈련(2016년 겨울) - 권이삭 선생님(예수제자교회 고1)

"TCE를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해야 하는지 알게 되어 좋았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과 오늘 내가 스치며 만났던 어린이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 전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 없는 책과 공과 실습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고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다면 좋은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글 없는 책은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구원과 예수님, 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어려웠던 전도 방법이 조금은 수월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 것 같다."

TCE교사대학(2016년 4학기) - 윤지은 선생님(순복음춘천교회 청년교사)

지금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14년 동안 한국의 어린이 인구가 260만 명이 줄어들었으며,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50%를 넘어가고 있고, 한국사회에 어린이 전도에 부정적인 이슈들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어린이들을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이전도의 집중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부정적인 요인들은 많지만 어린이들을 전도하기 원하는 생명을 내 거는 열정만이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MN

## 어린이전도협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새소식반 전도가 교회마다 동네마다 활성화 되게 하소서
2. 학교 앞 전도에 성실한 전도자를 보내주소서
3. 3일클럽 전도자훈련에 훈련생들을 보내주소서
4. 어린이찬양축제와 어린이 꽃잔치를 축복하시어 재정, 인력을 채우시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주소서

글 / 어린이전도협회 김마태 전도사



# 창립43주년 맞은 순복음 춘천교회를 탐방하다





이수형 담임목사

순복음춘천교회가 올 해로 43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적으로 잘 성장해 왔고, 무엇보다도 세대교체가 잘 이루어져 부흥 성장하고 있어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2대 담임목사님으로 부임을 해서 지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느끼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순복음춘천교회 후임으로 결정될 때 세 분의 아버지를 모시기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잘 양육해주신 나의 아버지! 세 번째는 저를 인정하시고 후임으로 선택하신 원로목사님을 영적 멘토이자 아버지로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경호원 시절에 '백만분의 일의 불완전 요소도 배제 한다'는 신조를 늘 염두에 두었기에 저는 불완전한 것을 찾아내는 명수였습니다. 그것이 제 목회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덮고 지나갈 것도 찾아내고 완벽주의자처럼 쉽게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덕하신 원로목사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 성향도 많이 바뀌어서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칭찬과 배려의 마음이 예전보다 확실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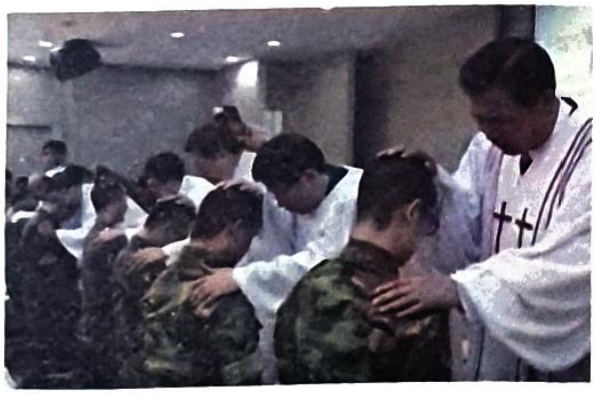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롭게 감당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워낙 저희 원로목사님께서 저를 칭찬하시니까 제가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난 3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2년 3개월 동안 저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생각보다 원로목사님의 목회의 흐름과 틀 안에서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원로목사님께 꼭 여쭙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틀렸다.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틀린 것이 없고 고쳐야 할 것이 없겠습니까마는 모든 것을 "잘 한다 잘 되었다" 고 하시니 더 신경을 써서 잘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시대가 변화고 있기에 교회도 거기에 걸맞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무리가 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세대를 위하여 좋은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신앙 안에서 흔들 깃발을 찾아주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며 비굴하지 않는 신앙으로 한 시대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 합니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앙 배경이나 춘천에 부임하기 전에 어떤 여정을 거쳐 왔는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영향의 많이







받은 분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써 주시면 됩니다.)

춘천에 오기 전에 홍천에서의 목회는 군부대의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으로 이끄신 것처럼 불모지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홍천에서 부교역자 3년, 교회를 개척하여 15년 목회하는 동안 1200평의 대지위에 350평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춘천 빌립보교회를 지교회로 화성대륙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단에서 부흥사회 부회장, 선교국장, 목대원 교수 및 신학교 교무처장으로 지역에서는 모든 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기도원 및 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등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평소

에 부모님처럼 존경하는 저희 원로목사님으로부터 후임 제의가 있었습니다. 실은 그 즈음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후임 제의가 있었지만 화성대륙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할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로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어 마음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타 교단이었기에 교단과 제가 섬기던 교회 안에서의 서운함, 여러 가지가 솔직히 마음을 평안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순복음춘천교회가 43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972년 4월 3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김주환 전도사님(현 원로목사님)의 개척으로 효자1동에 순복음춘천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후 저희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부흥 발전한 교회는 창립 30주년이 되는 2002년부터 효자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천성전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기까지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혜민사랑의 집" 봉사, "북강원도 결핵어린이 돕기" 등으로 꾸준히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2013년에는 김주환 담임목사님께서 원로목사님으로








추대되고 제가 2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세계열방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르침에 따라 우리 교회에 성도로 출석하거나 사역자로 헌신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 사랑, 기도, 전도,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명을

위하여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자!(수 14:12)"는 주제로 온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2015 순복음춘천교회 선교대회"(5월 3~5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주일 1,2,3부 예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드리는 선교주일 예배로, 오후예배는 선교대회로 진행하며, 4일에는 선교사역의 나눔과 교제의 시간으로 동해안을 여행하며 선교사 모임을, 5일에는 본 교회 출신 목회자들을 함께 초청해서 홈커밍데이로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창립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선교대회를 통해 지금까지 헌신하며 달려오신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동역화하고, 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비전을 고취시킴으로서 선교사역의 지경을 넓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개교회적으로도 잘 성장했지만 무엇보다도 춘천성시화에 주된 역할을 감당해온 교회입니다. 이수형목사님이 춘천성시본부 부이사장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춘천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춘천성시화의 비전은 제네바성시운동을 통해서 제네바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평화의 도시로 변모되었던 것처럼 춘천시가 춘천성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춘천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도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시화운동은 춘천에서 시작되었고, 춘천성시화운동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춘천이 한국 성시화운동의 발원지로써 성시화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길 소망합니다.

춘천성시화를 위해 춘천의 모든 교회와 복음사역 단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와 복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며,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성시화를 위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충만함을 통하여 성시화의 기초가 되는 복음전파와 교회회복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전체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룩성 회복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범죄와 문화 등 도시 내에 불신앙의 병폐를 치유, 추방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개인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교회가 이제는 이기에서 벗어나 연합사업에 함께 동역해야만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춘천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 것이며, 다른 지역의 본이 되는 춘천도성이 예루살렘처럼 성시관광이 줄을 잇는 춘천이 될 것입니다. 끝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 요한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 1833-1897)의 대학 축전 서곡 〈ACADEMIC FESTIVAL OVERTURE, OP. 80〉




봄내에도 봄을 재촉하는 봄비와 함께 노오란 개나리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 4월(四月)은 가장 잔인(殘忍)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차라리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했었다. … "(T.S 엘리엇의 황무지에서)

마침내 사순절의 고난의 계절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 대합창으로 겨우내 잔뜩 움츠려있었던 우리네 마음을 봄의 소리로 생동감있게 만들어줍니다.

독일이 가장 자랑하는 '3대 B' ( 베에토벤, 바하/바그너, 브람스)의 한 사람이었던 브람스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관현악 곡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서곡은 단 두 곡인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곡은 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아주 발랄한 청춘들의 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곡이긴 해도 엄격하게 소나타 형식을 따르지 않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말한 것처럼 '웃는 서곡' 이라 불리울 정도로 분위기가 유쾌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로 사용된 네 개의 곡들은 그가 스물 다섯 무렵 괴팅겐에서 학생들과 지내던 때 들었던 제1곡: 우리들은 훌륭한 교사를 세웠다. 제2곡: 국가의 아버지. 제3곡: 신입생의 노래. 제4곡: 기쁨의 노래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그 자신의 독특한 음악적 특성을 살려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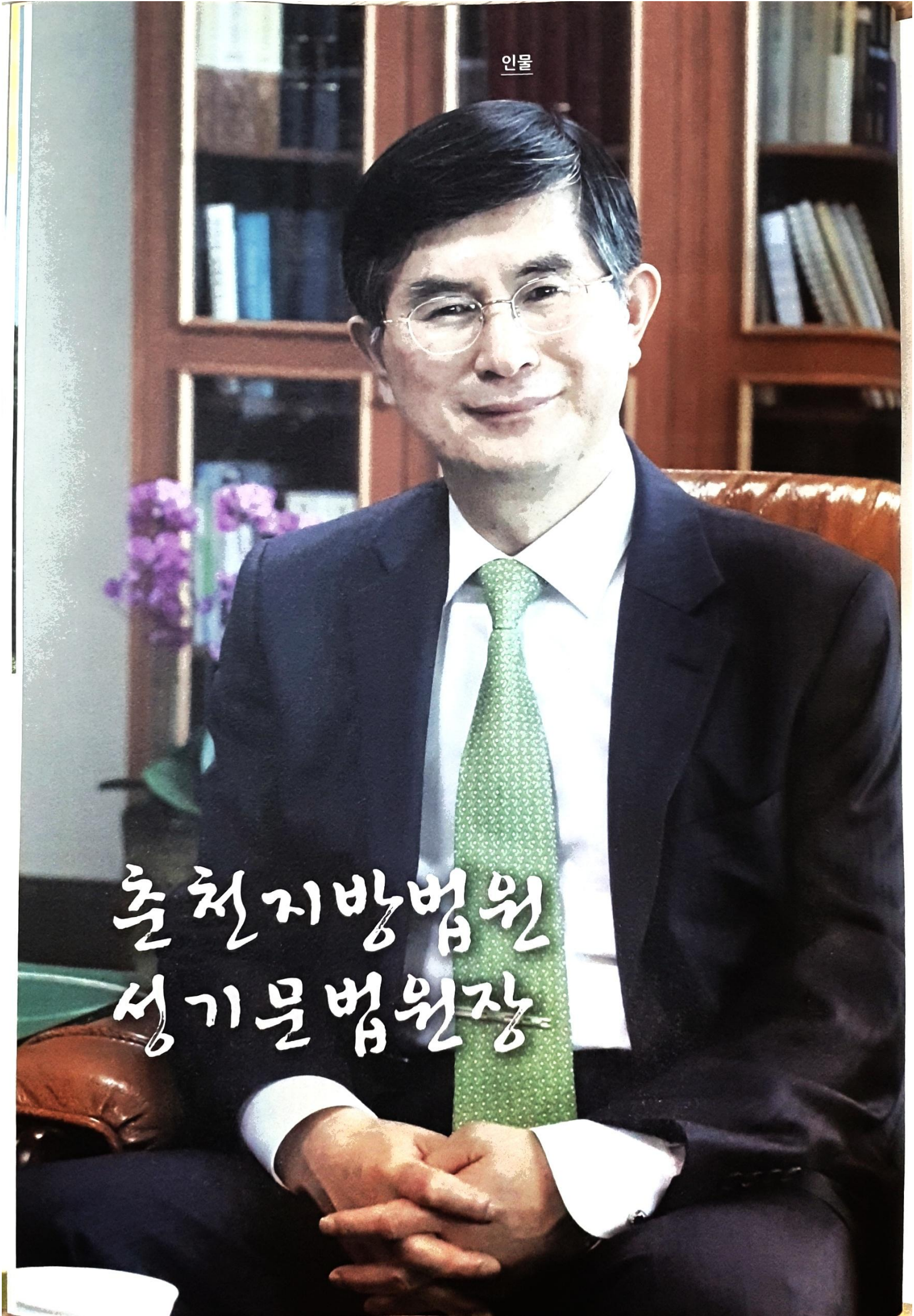
1879년 3월 그의 나이 46세 때, 브레슬라우 대학 철학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받은데 대한 보답으로 이듬해에 완성시킨 곡입니다. 또한 그의 평생 마음의 연인이었던 클라라 슈만에게 피아노 곡으로 편곡하여 헌정했던 유명한 곡입니다.

유명한 음반은 1948년에 세기의 지휘자였던 A. 토스카니니의 NBC 심포니 오키스트라가 모노로 녹음한 음반입니다. 또 L. 번스타인의 지휘로 유쾌한 지휘를 유투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봄내에서 아직 꽃샘추위와 황사가 창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봄 햇살이 좋은 날 볼륨을 높혀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소음을 선물로 한번 드려보시지요? 샤강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는 1+1으로 전해드립니다.

만천리에서 느즈막하게 보내드린 다니의 음악과 함께 한 봄 소식이었습니다.

글 / 김금찬 선교사



# 춘천지방법원 성기문 법원장

꽃망울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고 봄내음이 가득한 날, 춘천지방법원 성기문법원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춘천에 부임하신지 1년 3개월이 되었는데, 우리를 많이 기다리셨다고 하시는 말씀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성기문법원장님은 대학 때부터 몸담았던 서울 대학촌 교회를 출석하며 장로직분을 섬기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전 세대의 신앙적 열정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비전과 기도제목이라고 말씀하시며, 춘천에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평신도 성시화운동의 진원지였던 춘천지방법원의 명맥을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에 다시금 피어오를 홀리클럽의 부흥의 불꽃이 기대가 되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언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과 봉사로 섬기고 계신지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평안북도 선천인데 그 지역에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엄청난 불신 집안으로 시집오셔서 미신을 타파하고 가정 복음화를 이루었지요. 어머니의 지속적인 신앙 교육때문인지 제 신앙생활에는 큰 굴곡이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는 대학촌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주셨던 인물이나 책, 성경구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학으로 공부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이 되어 노예해방을 이끈 링컨 대통령 그리고 청각 시각 장애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헬렌켈러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좋아 하는 성경구절은 시편 37편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는 언제 이셨나요? 또 삶에서 가장 보람이 있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 이셨나요?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간증을 말씀해주세요.

사법시험에 낙방하여 영장을 받고 군입대한 때가 어려웠지요. 4년 복무 약속을 하고 군에 입대하였는데 앞날이 캄캄했어요. 혹독한 훈련과정을 견뎌내고 해군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사법시험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주로 통근버스나 창고에서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군입대 2년여 만에 합격을 하였고, 3년 10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순간 느낄 수 있었던 어쩌면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현재의 춘천지방법원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남은 임기 동안 꼭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요? 그리고 춘천의 성시화운동에 대해 바라는 소감(인상적이거나 기대하시는 것 등)을 나눠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은 법원의 대국민신뢰를 얻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의 진원지로서 그 당시 열정을 가졌던 분들이 아직도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열정이 젊은 세대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 춘천의 지도층에 있는 믿음의 선후배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의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원장의 직책에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지는 않고 저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춘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생각되지요.

장기적인 비전이나 기도의 제목이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학원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대학촌 교회에 출석하면서 대학선교의 비전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구름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나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신앙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전 세대의 신앙적 열정을 이어가는 것이 제 비전과 기도 제목입니다.

대담 / 이병철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 군민 연합 M.C.F 조찬 기도회

3월 21일(토) 오전 7시에 2군단 소속인 성문교회에서 군단 직할 M.C.F 조찬기도회를 춘천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동안 군교회들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춘천시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뜻 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연합 회장이신 지용찬목사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고, 홀리 클럽에 소속한 장로님들이 섹소폰으로 특송에 참여하면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M.C.F에 대해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M.C.F는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기독군인회)의 약자입니다. 2군단 산하에 속한 4개의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월은 성문교회에서 드렸고, 4월은 군단교회인 한빛교회에서, 5월은 불사조교회(오음리), 6월은 102보충대 교회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군민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신봉수 2군단 부군단장 : 군민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깐 신앙적으로 더 은혜가 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군선교가 더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교착상태인데, 이렇게 군민이 연합하면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거 같아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민간에서 기도의 후원을 해 주신다면 군에서 더 힘을 얻을 거 같습니다. 장병들이 군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 이렇게 민간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좀 더 개방적인 분위기라 마음이 더 열려서 그런지 더 은혜가 됩니다. 사실 제가 대구에서 근무하면서 군민이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군민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활성화되면 다른 곳으로도 점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성문교회 허원희목사**

사실 대대급 교회들은 열악합니다. 그런데 군민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군교회에 정말 좋은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군민이 인격적인 교류가 이뤄지면 장병들에게도 신선한 도전이 될 거 같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감동이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의석목사(연합회총무)**

기독병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류가 잘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군에서 요청하는 필요들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군민이 함께 하는 예배가 자주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필요도 알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감동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춘천 기독교 연합회에 바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2군단에는 여러 사단이 있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진중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때에 춘천 지역교회에서 협력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교회 목회자들과 만남도 갖고 해서 함께 협력해서 진중 세례식을 갖게 된다면 군 교회로서는 큼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것이 있디면 대대급 군 교회들과 춘천의 지역 교회들이 자매 결연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교회에서도 군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병사들도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에 자매 결연된 교회들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더 환영도 받고 사랑을 받고 부대로 돌아오면 군 생활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군대는 청년들 복음화에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이 연합해서 총제척인 접근하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민의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춘천의 지역교회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군교회는 사역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간 교회가 전도와 양육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군 선교에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군단 산하에 군종병들이 영적으로 병사들을 돌보는데 훈련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양육에 도움을 주면 군교회들로서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취재 / 이병철 기자
kokkos21@gmail.com

#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 모든 것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과 권세까지 주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구상의 생명체를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요구되는 모든 잠재능력이 동시에 부여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이후 밝혀진 인간의 뇌 과학적 실체가 바로 이 사실들을 잘 증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하고자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무한 잠재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져 있나니"(로마서 1:20)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神性, divine nature)이 반영되어 창조된 것이다. 그러나 이 능력과 신성은 종에 따라 수준이 아주 다르다. 이때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온갖 희망의 능력과 신성이 부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시편 8:5)이다. 우리 인간이 이룩한 오늘날의 문화 문명이나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선한 심성들이 모두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버금가는 능력과 신성을 발휘하여 우리 시대를 정보 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 사회로 발전시켜 오기도 했으며, 오랜 전쟁과 살상의 비극 속에서도 자유와 사랑과 화목과 평화를 위한 많은 발전적 비전을 실현해 오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각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적으로 실현해 나갈 이성적 생명체를 꿈꾸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한 잠재력과 신성을 복으로 주시되, 특히 하나님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보 도구로서의 언어 능력을 주셨다. 실제로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완전히 차별화되는 능력상의 경계선이 바로 이 언어 사용에 있다. 우리 인간이 이룩한 모든 문화 문명 현상들은 다 이 언어의 산물인

것이다. 언어가 있어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사물을 정보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루어 소통할 수도 있으며, 무엇을 궁리하거나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당연히 사람을 통해 이 지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승화시키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적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감탄하신 사실들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신성을 발휘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스스로도 행복한 최고최선의 삶을 실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조건화된 존재이다.

바로 이 사실 속에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독립적 희망과 비전을 갖고 살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역할상의 사명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 은혜와 복을 이용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을 실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사명을 다하는 의무가 우리 삶의 고통이 아니라 최고최선의 복을 누리는 자기완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용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진실과 진심으로 수행해 나갈 때, 악에 빠져 실족하지 않고 최고최선의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상호 관계를 알고 하나님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이며 사명이며 비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신성을 최대 가치로 활용하여 주어진 사명을 적극 수행하고자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태복음 16:19)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풀 것은 풀고 맬 것은 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풀고 무엇을 매야 할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처럼, 본능적 욕심 시기 질투 거짓 간음 비판 갈등 대립 미움 자만 등과 같은 부정적 마음과 행동은 풀어 없애고, 믿음 소망 사랑 긍휼 용서 포용 화목 협동 평화 감사 회개 등과 같은 긍정적 마음과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한 몸으로 꽁꽁 동여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아름다운 비전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 세상은 온통 지금 풀 것은 매고, 맬 것은 풀면서 좌충우돌 거대한 불행의 함정 속으로 질주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글 / 박민수 교수
순복음춘천교회 장로, 박민수뇌경영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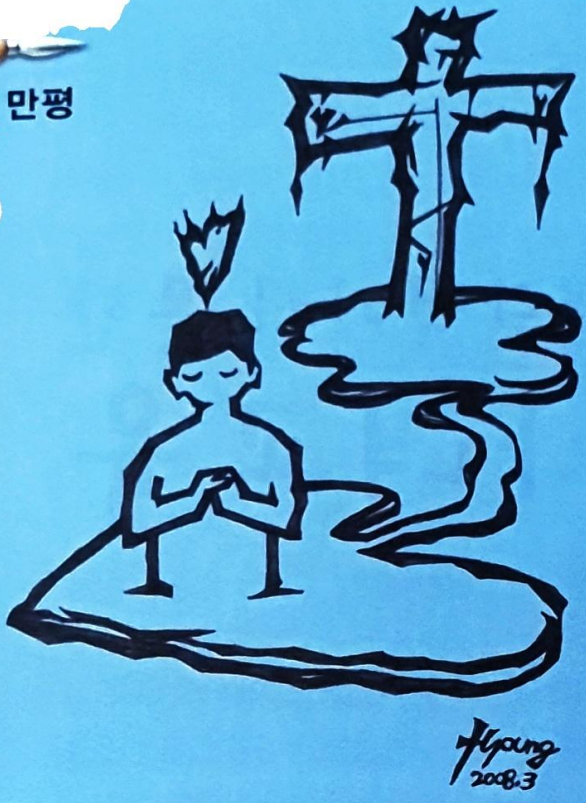
2015 | 캔버스에 아크릴혼합재료 | 10호F

## 골고다 김춘배 (강원도기독미술인협회장/본보 편집위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이우림 박사/ 정희치 작곡)
거칠고 험한 그 길을 피땀을 흘리며 십자가 지시고 외로이 가셨네
아~ 절절한 사랑으로 보혈 흘려 날 구하셨네.
주님의 보혈이 생명의 강물이 되어 나를 적시네 나를 살리셨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 죽을 영혼 살리셨네
태양은 눈을 가리고 땅은 울었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지실 때 그 귀한 아들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그 얼굴 돌리시고 제자들도 주를 떠났네
쓸쓸한 언덕에 바람만 차가운데 바람만 차가운데... 아멘

취재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만평




## 부활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죄를 대신 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으며, 온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림, 글 / 이관형 기자

예향

##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983년 10월 9일! 전두환 정권 시절에 엄청난 테러사건이 있었다.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불리는데, 우리나라의 장관들과 국회의원 17명이 지금의 미얀마에서 폭탄테러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그때 수행원으로 참가했던 한 사람은 대통령을 모시고 막 현장으로 바쁘게 가는 중이었는데 길이 막혔다. 그렇게 해서 조금 늦게 간 것이 그 끔찍한 사건을 피하고 살아남게 된 것이다. 폭탄은 터졌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해외순방 일정이 취소되고, 부랴부랴 당시 대통령과 같이 비상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돌아왔다. 너무나도 긴장되고 어려운 시간이라서 비행장에 새벽 4시에 내렸는데 수행원들이 다 그냥 흩어지고 말았다. 서로 인사도 할 정신도 아니고, 이 분도 공항에서 내리기는 했는데 아직 깜깜한 밤이었다. '이 밤에 어디로 가나?' 그래서 우선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가 물어 본다. 어디로 갈까요? 그때 생각을 했다. 내가 어디로 가야하나? 죽어야 할 사람이 지금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하나?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불쑥 교회로 갑시다. 라고 했다 한다. 당시에 서울 소망교회에 대충 대충 다닐 때였는데 예배실에 앉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나온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글 / 최상도 기자



# 객관적이지 못한 자녀교육

유경천 형제

"이 때에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1) 의 아들들이더니 그들이 주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는 제사장이었으며 그 두 아들(홉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직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서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고, "벨리알의 아들들(sons of Belial)"이라고 하고 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까이서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도 많다.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 또는 잘 믿는 그리스도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일반 불신자 자녀들보다 더 형편없는 경우들을 보는 것이다. 아버지의 신분에 걸 맞는 자녀로서의 삶은 고사하고라도 아예 구원받지 못해 여전히 마귀의 자녀들로서 악하고 불의한 자녀들까지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엘리가 주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었다.(29절) 엘리는 자식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마땅히 그들을 훈계하고 바로잡는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도 끔찍이 위하는(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에게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위하는 우상이 되고 있다. 하나 또는 둘 밖에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라면 부모들은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주고자 한다. 아마 그런 마음의 십분의 일만큼만 주님께 쏟는다면 그는 꽤나 주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삼상 2장 30절

그렇게 끔찍이도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다

보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관용하게 되고 비뚤어지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엄하게 징계하지 못한다.(23~25절) 그 결과 오늘날 믿는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아이들이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우며, 사납고, 불순종하는 영이 가득한 아이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본다.

그들은 믿는 부모 아래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결국엔 불신자 가정의 자녀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평생을 죄와 육신을 쫓아 살며 우상에 빠져 사는 자녀들이 되고 만다. 그런데 여기 홉니와 비느하스에 비교되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보게 된다. 그는 한나가 정말로 어렵게 얻은 아들로 귀하기로 치자면 그 누구보다 귀한 자식이었다.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주님과 한 약속을 더 존중했고 그래서 기꺼이 자기 아들을 주님께 드렸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사무엘은 부모 밑에서 교육받지 못했지만, 제사장의 아들들을 포함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갔다. 이것은 물론 한나의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기도 하겠지만, 또한 제사장 엘리가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훈계로서 양육하지 못했어도, 도리어 사무엘만큼은 정석대로 철저하게 교육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삼상 3:9) 왜냐하면 남의 자식에 대해서는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녀를 하나님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부모라면 차라리 자녀훈육을 더 잘 할 수 있는 남에게 교육을 위탁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실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성경의 원칙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서도 또한 다른 사람이 교육에 간섭하는 것도 불쾌해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 자녀를 홉니와 비느하스 같이 완전히 실패하는 자녀들로 만들겠다는 것밖에는 되질 않는다.

---

(1) 구약성경에는 "벨리알의 자손들(혹은 아들, 딸,사람)"이라는 표현이 15구절에 걸쳐 16번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벨리알의 자손들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자들(신13:13), 베냐민 기브아에 살던 남색하는 자들(삿19:22, 삿20:13), 술에 취한 자(엘리로부터 오해받은 한나) (삼상1:16),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헌물을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삼상2:12),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삼상10:27), 다윗이 베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나발(삼상25:17,25),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형제들에게 노략물을 분배해주지 않으려는 자들(삼상30:22), 시므이가 다윗을 모욕하며 저주하는 말(삼하16:7),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바(삼하20:1), 심판을 받아 불살라질 자들(삼하23:6), 이세벨의 사주를 받아 나봇에 대해 거짓 증언한 자들(왕상 21:10,13), 르호보암 왕을 대적한 자들(대하13:7) 즉,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분리하지 못한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 "왜 부활인가!"

범죄 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원리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엡1:9, 엡3:2, 엡3:9)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요3:16) 영생 얻는 믿음은 예수를 능력자, 위대한 철학자, 선한선생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20:31)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한 아기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기적을 베푼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십자가를 져야할 상황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마26:56)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딤전2:4)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



라' (행17:31)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 역사 속에 있었던 유일무이한 부활을 통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다.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 믿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2:22) 부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증거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1:4)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복음의 DNA를 살펴보아야 한다. 초대교회를 세운 진리의 기둥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행1:22) 가룟 유다를 대신할 복음의 증인을 뽑을 때 사도의 사명을 언급한 말씀이다. 초대교회는 부활로 세워진 공동체이다. 부활이 사라진 이 시대, 놓쳐버린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을 다시 붙잡고 교회들이 부활되길 소망한다.



정선문목사
제자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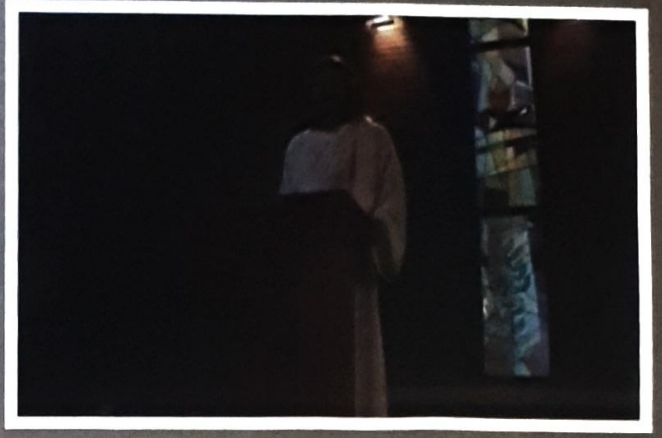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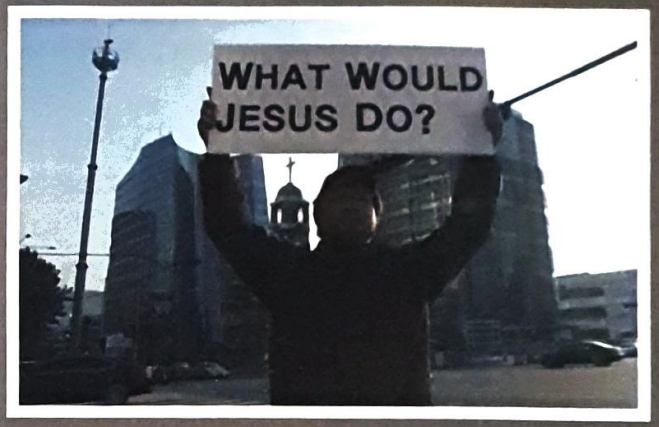

# 쿼바디스

6년 전 소개된 같은 제목의 영화라 우선 의아스러울 것 같다. 바로 마빈 르로이 감독의 1951년 작 동명 대작영화이다. 이번 작품은 작년(2014)에 나왔으며 한국 감독에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감독 김재환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며 해부하려는 다큐를 만들어 화제가 된 사람이다. 2011년 방송에 소개된 맛집의 실체를 파헤친 〈트루맛쇼〉로 일약 화제를 몰고 등장하며 전주국제영화제 JIFF 관객상을 수상하게 된 문제적 감독이다. 이어 〈MB의 추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루기도 하며 이번에 세 번째 작품으로 한국교회를 정면으로 해부하고 '고발' (?)하는 '도발' 을 감행한 것이다.

영화는 '마이클 모어' 라는 이름의 다큐 감독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추적해 나가는 형식으로 전개되는데 실제 마이클 무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다큐감독의 이름을 살짝 바꿔서 차용한 것이 무어 감독의 사회비판적인 정신으로 해부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인 것 같다.

사랑의 교회 건물을 시작으로 하여 기독인 사업체인 이랜드의 대량해고 사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 일가 세습화 사건 등 대형화 되고 기업화 되는 한국 기독교의 영적 위기를 크리스천인 감독의 안타까운 심정과 소명 및 소망을 바탕으로 진정한 영적 회복을 희구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마침내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대기업이 되었다"라는 주인공 모어의 인터뷰나 한국교회의 총체적 위기를 걱정하며 각성을 촉구하는 옥한흠 목사의 설교는 백미이다.

이 영화는 펀딩21이라는 후원의 형태로 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의 변(辯)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전략)어느 날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왔고, 물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기다린다는 알리바이로 행위 없는 믿음의 무기력함을 순종으로 위장하고, 젊은 몸의 시간을 이리 흘려보내도 괜찮은 것인가. No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Yes라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은 계속 불어왔고 이제, 나의 성냥을 그어야할 시각이다.

이것이 진짜 교회인가....(중략).... 교회는 눈이 멀었고 청년들은 교회를 떠났다. 교회가 먼저 공감과 연민을 잃어버렸고, 이 땅에서 예수를 죽였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 예수를 모욕하는, 교회 안에 있는 안티 기독교 장사치들의 좌판을 엎자. 오늘의 권력과 교회, 나와 우리의 탐욕을 정면으로 막아서자. 그래서 만들었다, 쿼바디스. (후략)

현대의 영적 타락에 빠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타협없는 진정한 믿음의 회복을 일깨우고자 경고하며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1963년 66세의 나이로 소천한 유명한 에이든 토저 목사의 지적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영적 위기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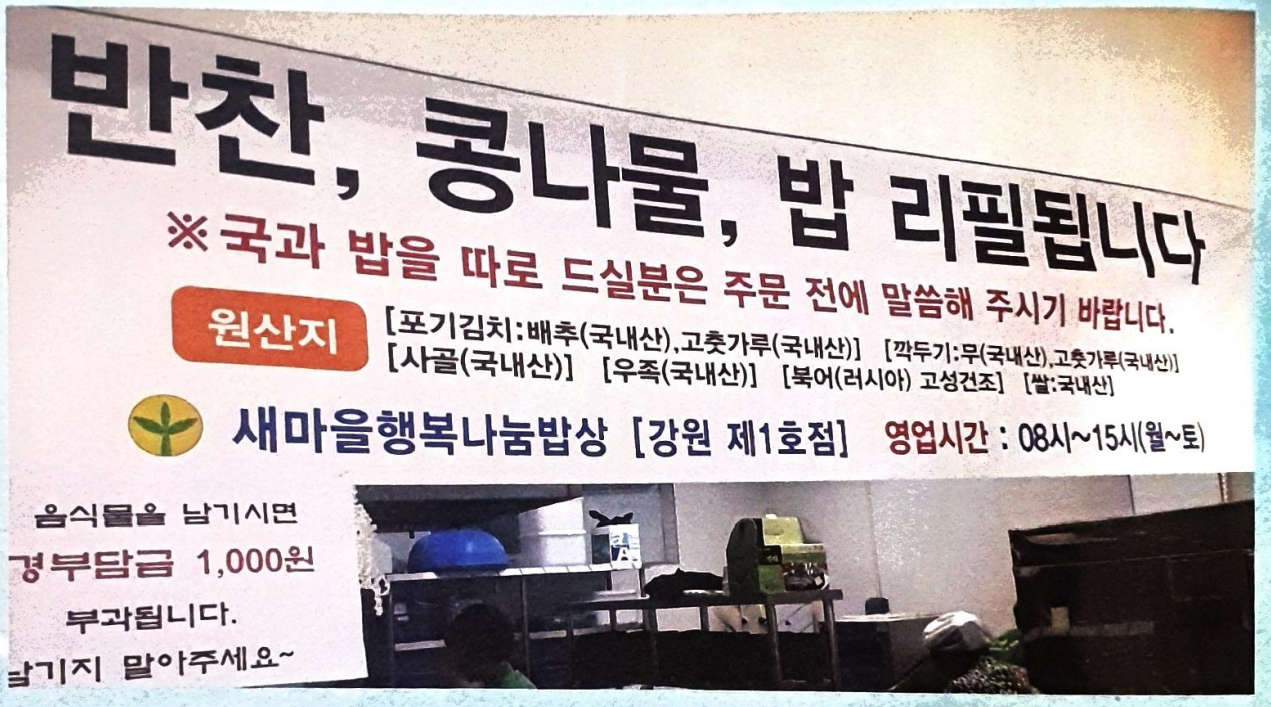
주님 다시 오시며 주님 다시 뵈올 그날까지 현재의 우리 기독교의 영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에 이 영화는 빼아픈 반성의 기회를 주면서 현대 문명 속에 권력과 물질의 유혹으로 함몰되는 인간 본성을 자복하고 영적 각성이 절실히 필요함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글 / 김춘배 기자
beller@hanmail.net



# 우리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요

## 새마을행복나눔밥상 강원1호점




'우리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요.' 이 글은 80년대 말 필자가 대학 4년간 교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춘천 s야간 중고등학교의 캐치프레이즈이다. 야학교사로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훌륭한 형제자매들을 연결시켜 주셨으며, 특히 꽃사슴 보다 예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 주셨다. 또한 야학의 제자 덕분에 40대 초반에 주례도 서 보게 되었다. 그 당시 깔끔한 양복과 꽃사지, 그리고 하얀 장갑을 낀 나를 보고 다른 하객으로 온 지인들이 내가 재혼하는 줄 알고 황당했다고 한다.

뜬금없이 옛날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소개하는 음식점의 광고전단지 내용 중에 급식이 필요한 학생을 추천해주면 무료로 도시락을 전달해 준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광고전단지를 보고 여러 지인들과 함께 찾아간 이 음식점은 100명 이상은 충분히 앉을 만큼 넓고 깨끗한 교회식당을 연상시켰다. 시장골목의 푸짐한 할머니 얼굴처럼 국밥집의 훈기와 구수한 냄새가 가득차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던 새마을회원들의 순번제 봉사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안내로 자리에 착석한 뒤에 메뉴판을 보니 광고 전단지와는 달리 가정식 백반이 추가된 메뉴가 두 가지가 있었다. 구수한 사골국물과 시원한 북어가 만나 조화를 이룬 사골북어국밥과 8가지의 가정식 반찬으로 구성된 백반이 모두 1인분에 4,000원이었다. 더욱이 반찬, 콩나물, 밥도 무한 리필이 된다고 하니 저렴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었다. 조금 미안한 생각에 tip박스를 찾아봤지만 있을 턱이 없었다. 사실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제일기사식당(4,000원)처럼 반찬가짓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석정가든 한식뷔페(6,000원)처럼 푸짐한 잔치상은 아니었지만 이곳 음식점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음식점을 통하여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선한사업은 이곳 음식점 수익금을 매주 토요일, 휴업일 결석 학생을 위한 무료도시락 사업에 사용하고 앞으로 도시락 수급대상을 독거노인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고 했다. 봉사자들의 친철과 깊은 음식 맛, 그리고 복지나눔 공동체라는 선한사업에 힘쓰는 이곳을 일부러라도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달 경남도지사는 학교무상급식중단, 선별적 무상급식을 통하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소신있는 용감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용감한 크리스찬들은 이 시국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 크리스찬에게는 문제가 아닌 기도제목만 있을 뿐이라던 설교말씀이 있듯이 가정과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꼭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기도를 해야 할 때이다.'

글 / 이관형 기자
artpam@hanmail.net



#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자연치료의원을 개원하기까지

초등학교 시절부터 나의 꿈은 의사가 되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다. 재수를 하던 시절 친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어릴 적 나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확신이 되었다. 오직 그 한 가지만 생각했기에 거듭된 대학입시 실패도 그 꿈을 포기하게 하지 못했고 결국 스물세살의 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10년 만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 서른일곱이라는 늦은 나이에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고 곧바로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요양병원에서 여생을 보내시는 노인환자들 곁에서 웰비잉과 웰다잉을 돕는 것이 크리스찬 의사로서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에 만11년간을 열심히 일했다. 7, 80대의 노인 환자들 대부분이 매일 아침 한움큼이나 되는 많은 약을 복용하시지만 회진을 돌 때면 여전히 통증, 불면증, 변비 등등 수없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신다. 매일 계속되는 많은 증상들 앞에서 더 이상 처방할 약도 없고, 처방을 한다 해도 그 약들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환자들 곁에서 함께 지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의사로서의 한계를 절감했다.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 식사를 잘 못하실 정도가 되면 결국 약도 다 끊을 수밖에 없다. 약을 생명처럼 여기던 환자들이 약을 끊으면 곧 병세가 악화되고 돌아가실 것 같지만 놀랍게도 약을 다 끊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수 시간 내지 수일 내로 사망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통보를 받고 대학병원치료를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환자도 많았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는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회복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사람의 몸이 의학 교과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14년 3월, 요양병원 병원장직을 내려놓고 6월에 개인의원을 개원하였다. "김태균 가정의학과"라는 이름이 아니라 자연의학에 기

초한 자연치료를 행하는 "김태균 자연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열었다. 내가 이런 병원을 열게 된 것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현대의학의 한계 때문에 고민하던 중,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 얻은 영감 때문이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 몸 된 교회공동체의 성장원리를 설명해 주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우리 몸의 작동원리와 치유원리를 한 순간에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12쌍, 척수에서 31쌍의 신경이 나와 몸의 각 부분으로 연결되어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명령을 내림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만일 척추가 비뚤어지거나 틀어져서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각 장기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질병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나는 이 점에 착안하여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척추교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척추가 바로 되어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전달된다고 해서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각 장기에서 그 명령에 반응할 힘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각 장기에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즉 내부적인 힘을 면역력으로 보았다. 그래서 면역을 좋게 하는 치료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교정치료와 면역치료가 우리병원 치료의 중요한 두 축이 된 이유이다. 16절 말씀에서 특히 나에게 자연치료에 대한 확신을 주었던 내용은 "스스로 세우느니라"라는 말씀이다. 몸은 자기 속에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은 모든 것을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결국 지금까지 배운 현대의학적 치료방법을 내려놓고 자연의학을 붙잡게 되었다.

현대의학은 철저히 근거중심의 학문이기에 아직 치료의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은 자연치료요법들이 의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희귀, 난치 질환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을 뛰어넘는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사로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의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치료의 근거들이 새롭게 마련되리라고 믿는다.

거듭된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도록 나를 지키시고 의사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나는 매일 그분께 지혜를 구하며 질병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이들의 영육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 / 김태균자연의원 원장 김태균

## 96주년 삼일절 연합예배



3월1일(주일) 저녁7시30분에는 96주년 삼일절연합예배가 석사감리교회(손학균목사)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있었다. 차덕수목사(강원침례교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남궁연장로(중앙성결교회, 부회장)의 대표기도와 함영도목사(기쁜장로교회, 서기)의 "고린도전서 12장 25~27절" 성경봉독, 성시합창단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지용찬목사(은혜장로교회, 회장)의 인사말씀과 강사소개가 있었으며, 최낙중목사(해오름교회)의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이란 제목설교가 있었다. 설교 후에는 특별기도시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기철목사(순복음제일교회), 북한의 동포와 평화통일을 위해 조영호목사(그리스도의교회), 춘천 복음화와 교회를 위해 피종호목사(나눔성결교회)가 있었으며, 조용아목사(성광장로교회)의 헌금기도, 그루터기앙상블의 봉헌찬양이 있었다. 이어 김영일시의장과 최동용시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이광우목사(신촌장로교회, 부총무)의 광고가 있은 후, 손학균목사(석사감리교회)의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었고, 김종익목사(광명장로교회, 부회장)의 만세삼창이 있었으며, 애국가 제창과 박인관목사(광염감리교회, 직전회장)의 축도로 부활절 연합예배가 마무리되었다. 이날 예배안내에는 홀리클럽이, 차량안내에는 장로연합회가 봉사하였다.

## 성시매거진 편집회의



4월호 197호 성시매거진 편집회의가 3월 4일(수) 오후2시에 성시본부 사무실에서 있었다.

## 교회법(정관)세미나

3월 4일(수) 오전10시 제일장로교회(박상호목사)에서는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 정재호목사) 주최로 목회자대상 교회법(정관)세미나가 교회법연구소 소재열소장의 강의로 열려 목회자들에게 교회법에 관해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되었고, 세미나 후에는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 39차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39차 쥬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이 3월 9일(월) 저녁 7시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목사)있었다. 홍요셉목사(사랑의침례교회)의 사회, 하늘소리 찬양단의 찬양과 황병호장로(석사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조칠수목사(하나의



교회)의 말씀선포, 이병철목사의 기도회 인도와 탈북자인 김성란집사의 특송, 이영규목사님(신북교회)의 헌금기도, 김은선목사(꿈이있는교회)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40차 4월 모임은 4월 13일 오후2시~9시까지 통일컨퍼런스가 "분단 70년을 넘어 통일원년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 이슬람선교학교 개강

3월 17일(화) 저녁7시 예광교회(조영춘목사)에서 이슬람선교학교가 매주 화요일마다 9주간 과정으로 개강되었다. 이슬람선교학교는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인 FIM국제선교회(유해석선교사)가 주최하여 진행하고 있다.



### 영국 윌리엄스 안드레아변호사 강의



3월21일(토) 저녁8시 한마음교회(김성로목사)에서 영국 윌리엄스 안드레아 변호사 강의가 있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강의를 통해 "한국이 영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 한국을 보면 기독교 운동 측면에서 참 강한 나라이지만, 강하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영국도 강력한 기독교 국가이지만 옳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때까지 교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야 하고 또 올바른 가치관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침묵하지 말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주었던 영국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한국교회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 킹덤패밀리집회

3월23일(월)~24일(화) 주향교회(이병철목사)에서는 킹덤패밀리집회가 있었다. 오후2





시 저녁7시 총4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강사는 우바울선교사와 중국 5대 가정교회의 영적 아비인 기드온 추목사였다.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1. 한국교회는 잘 달리는 준마같고 독수리 같다.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많고 탁월함은 갖고 있으나 혼자 다닌다. 세계적인 교회와 주의 종이 있으나 이제는 독수리 같은 교회가 아니라 기러기와 같은 대열로 함께 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패밀리로 연합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2. 천국의 원리는 두 세대의 연합인데, 주 오시기전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컨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말4:6) 하심처럼 아비세대와 자녀세대가 분리되면 저주이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가정에서 아비와 자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세대차이가 아니라 영적질서가 세워지고 아비세대의 영적유업을 자녀세대에게로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회복이 교회와 가정을 회복케 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케 할 수 있다고 선포했다. 킹덤패밀리 집회는 서울과 춘천을 이어 광주, 대전, 부산까지 집회가 계속된다.

## 제9회 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



3월 28일(토) 오후7시에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후원으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9회 성시합창단 특별기획공연 오페라 'THE CROSS'가 공연이 있었다. 윤창호교수의 지휘로 성악가 김현주, 이광순, 강종영과 아리랑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사랑합창단'까지 총 100여명이 아름다운 하모니와 몸짓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을 찬양했다. 7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하며 고난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이기영 성시합창단 단무장이 전했다.

취재 / 성시매거진 편집부

# 알려드려요

## 춘천홀리클럽

1.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은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2. 춘천홀리클럽 카페 많이 이용해주세요.
주소 : http://cafe.daum.net/ccholly
또는 다음카페/춘천홀리클럽

## 춘천성시합창단 운영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 춘천성시무용단원 수시모집 (교회 방문수업 가능)

대상 : 몸찬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을 모집합니다.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수업합니다
장소 : 후평2동 796-11번지
010-9333-8753 단장 유은경권사
010-3180-5330 지도 김귀선권사

## 헐몬산악회(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주소 : cafe.daum.net/ccjmm
010-8798-8782 정학수 장로

## 교역자 축구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 목회자 족구회원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011-361-1995

## 한마음 조기탁구회

일시 : 월~토 매일 아침 6:30부터
장소 : 탁구세상(강원대 후문앞 언덕)
회비 : 월4만원
010-3375-4323

##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수시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장소 : 춘천은혜교회
자격 : 연령제한 없음, 찬양을 사모하는 분
010-2492-4316 회장
010-6378-2261 지휘자

## 새벽날개 워십선교단 화요모임 헌신자 모집

대상 : 현대무용 워십찬양율동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20분
장소 : 우두동 벧엘교회 2층 주일학교 예배강당
010-9495-1029 한혜영 집사

## 춘천시 목회자 색소폰 동아리 모집

대상 : 춘천시내에 계시는 목회자 초보자 환영. 무료
일시 : 매주 월 오후2시~5시
장소 : 나눔교회
010-5521-3779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중풍,장애등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011-366-4972, 033-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 장로

## 장수방문요양센터(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제출,
등급판정받기 원하시는 분
019-9138-4452, 033-251-4452

## 탁구대 무료기증 받습니다

예수제자교회 010-3771-0834

## 춘천 호스피스

사랑과 믿음으로 말기암 환자를 돌봐드립니다.
대상 : 말기암으로 진단 받은 환자
033-261-5652 입원상담

## 청소년 인터넷 중독 무료상담 및 심리치료

강사 : 김옥련(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 기독교상담 석사과정)
장소 : 춘천샘솟는장로교회 부설 119상담센터
070-4383-4720, 010-7567-5012

## 춘천기독교교역자연합회

행사명 : 국내 성지 순례 및 역사기행
행사일시 : 2015년 4월 9일(목) 오전9시 온누리교회 출발
대상 : 목회자 부부 가족 선착순40명
회비 : 각 가정당 1만원
일정 : 양자순교자기념관 - 점심 - 독립기념관 - 저녁 (기념품증정)

## 하모니카 찬양 연주반 모집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장소 : 춘천드림성결교회(동광길7)
회비 : 2만원(교재 및 간식비 포함)
백승환목사 (010-3466-5835)

# "여러분이 성시화운동의 기수입니다"

## 춘천성시화운동 후원에 동참하는 단체 및 개인을 소개합니다.

개인

강옥자 고순덕 곽해옥 권영일 권영순 권영자 권혁자 김관수 김기선 김명자 김미경 김복심 김상욱 김성희 김숙희 김순덕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태 김영희 김은주 김은철 김은희 김재홍 김정미 김정진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지영 김진구 김춘화 김춘희 김향란 김현덕 김현정 김현철 김혜숙 김혜순 김화분 김희경 노수자 문현숙 민경원 민관식 민병임 박갑출 박경미 박금화 박노향 박덕남 박동환 박만규 박명관 박명선 박민수 박순배 박완영 박윤덕 박제자 박찬옥 박필상 박혜성 배진철 배혜영 서묘석 서성진 성숙자 성화숙 손임순 송갑수 송영인 송준선 송항순 신미연 신옥자 심경하 안순연 안현주 어금옥 엄근혜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순자 오흥금 오흥수 원유미 원희정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균 유재란 유재형 유정순 윤성자 윤애자 윤은옥 이갑용 이광필 이규현 이뇌연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병일 이세희 이승희 이연화 이영숙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용숙 이윤규 이은경 이은준 이종상 이주영 이진주 이철호 이태우 이형식 이혜숙 임덕수 임우선 임재철 임창수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소희 장창순 전옥희 전천일 정구영 정국환 정규시 정석호 정성옥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재현 정종승 정진호 정치웅 조경희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호 조소현 조수지 조정화 주명호 주신자 지윤성 차경자 차재옥 최귀숙 최선이 최옥순 최종대 최종덕 최종인 표복순 탁광희 하명수 한명수 한순수 한정연 함종현 허 봉 허서구 허순영 현재용 홍순복 홍인숙 홍택기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호석

교회

갈릴리교회 광염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교회 나눔과섬김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사랑침례교회 사암교회 석사교회 새춘천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신북성결교회 신성교회 옥산포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주의숲교회 주향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침례교회 새춘천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기업

베드로선교센타 예수제자운동 행복재가요양원 거두주유소 영광한의원 춘천와이신협

모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 신청 및 문의 033)-256-1260

〈 후원계좌 안내 〉

신협 131-005-93756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농협 172242-51-085114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센터

말기암환자의 남은 삶을 의미있고 평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전인적 서비스

**담당자 연락처 : 033.258.9060~2**

## 강원대학교병원 완화의료병동은?

- 말기암 환자의 암성통증 및 증상을 관리합니다.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이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돌봄 유형

- 암성 통증, 신체적 증상 조절, 가족문제 상담 및 중재,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기념일 축하,소원들어주기), 영적상담과 종교적 돌봄, 심리적지지, 사별가족 지지모임

## 특별프로그램

- 다도, 미술, 원예, 스포츠마사지, 영화상영, 힐링노래방, 음악회, 가족지지모임

##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 완화의료팀은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나누는 자세를 배우고,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 및 자원봉사자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자원봉사자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기　　간 2015년 4월 16일(목)~4월 17(금)
- 장　　소 어린이병원 2층 네트워크실
- 대　　상 일반인
- 활동 내용 원예요법, 미술요법, 다도요법, 스포츠마사지, 목욕봉사, 화초관리, 말벗
  (그외 재능기부 가능 여부는 상담 시 문의 해주세요)
- 모집 기간 2015년 4월 10일(금)까지
- 문의 사항 033.258.9060

제공 : 명절선물, 무료주차권, 봉사시간 지연 시 식권

쥬빌리 통일구호선교회
www.jubileeuni.com

분단 70년

# 춘천 통일컨퍼런스 & 쥬빌리코리아 대회

2015년 4월 13일(월), 14:00~21:00

## 춘천 주향교회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396-2, www.chjh.org, 070-8633-0363)

※북한식 저녁제공합니다




## 통일컨퍼런스 14:00~18:00

**"분단 70년을 넘어 통일 원년을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1 Section _ "분단 70년을 넘어 통일 원년으로"*

사회 / 주제토론 / 지정토론


조요셉 목사 (물댄동산교회)


허문영 박사 (평화한국)


송원근 목사 (자연빛교회)


이병철 목사 (주향교회)


최상도 목사 (사암성결교회)

*2 Section _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

대북지원사역 / 탈북민사역 / 교육, 기도사역 / 통일선교의 적용


이관우 목사 (CCC통일봉사단)


이빌립 목사 (통일소망선교회)


오성훈 목사 (PN4N)


하광민 목사 (생명나래교회)

문의 : 이병철 목사(010-6254-3162)

## 쥬빌리코리아 대회 19:00~21:00

**"주여! 70년이 찼나이다."**



강사 : 유관지 목사
(북한교회연구원)

쥬빌리코리아 지역대회 일정

춘천 4월 13일 대구 4월 23일 제주 5월 11일 전주 5월 18일 광주 5월 19일 대전 5월 19일 고양파주 5월 25일 통영 5월 26일 부산 6월 25일